

도요타마히메 신사의 역사

도요타마히메 신사의 기원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원래는 시오타 강 부근에 있던 신사로 전국 시대(1467~1568)의 내란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 현재의 사가현에 해당하는 지역은 나베시마 가문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우레시노는 나베시마 가문의 분가인 하스노이케 가문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1615년에 도요타마히메 신사가 재건된 후 초대 하스노이케 번주 나베시마 나오즈미(1616~1669)가 나베시마 가문의 문양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신사의 위신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나베시마 나오즈미는 우레시노에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하여 지금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신사는 1882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되었으며, 산노 도리이(세 번째 도리이) 등 에도 시대에 지어진 건조물의 일부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아름다운 신인 도요타마히메의 전설과 관련하여 건강과 피부 미용을 기원하기 위해 참배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신사에는 '나마즈사마'라고 불리는 메기 신도 모셔져 있습니다. 메기는 도요타마히메의 사자로 피부가 매끄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